

가족의 행복을 부르는 '집에서 잘 노는 법'

집놀이-그 여자 그 남자의

김진애 지음



'집'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도 쉬워 보이지만 집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왕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라면 이곳에서 '놀이'처럼 즐겁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이 집은 누구인가?', '21세기엔 어린 집에 살고 싶다', '우리의 주거 문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등 '집'에 관한 책을 꾸준히 펴낸 도시건축가 김진애가 이번에는 '집놀이'를 제안한다.

신작 '집놀이-그 여자 그 남자의'는 집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풍경을 관찰하며 다양한 놀이의 방식을 제안하는 책이다. 재미있고, 독창적이고, 신선한 놀이방법을 만날 수 있어 흥미롭다.

저자는 '집놀이'가 최고의 놀이가 될 수 있는 것은 24시간, 365일 할 수 있는 일상의 놀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작은 행복감을 주는 수많은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게 집놀이라고 덧붙인다. 그가 제안하는 '집놀이'의 조건은 세 가지다. 스스로 한다, 같이 한다, 자기 식으로 한다.

책은 네 가지 주제를 놓고 자신을 포함한 지인들의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들을 풀어내며 재미있게 전개된다. 저자는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여자 남자가 될 싸우며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집이 작다고 불평하지 않으며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좀 '집같이' 살아볼



'집놀이' 방법 중 하나는 식탁을 온 가족의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반디 제공)

까? 네 가지 주제를 놓고 글을 썼다. 싸우며 정드는 집, 아이가 쑥쑥 자라는 집, 작은 집도 크게 사는 집 등 모두 우리가 '집'에 바라는 것들이다.

그녀가 전해주는 이야기들은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누구라도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글들로 쉽고 재미있게 읽힌다.

'남녀가 싸우며 정드는 집'을 만들려면 부엌을 집 한 가운데로 끌어내고, 싱크대 높이를 남자 키에 맞추라고 제안한다. 저자 부부의 특별 행사인 '김치 담그기'가 삶을 얼마나 유쾌하게 변모시켰는지 이야기하며 '커피만의 놀이' 한가지씩은 만들라고 말한다.

출퇴근하는 정규직에서 벗어난 남편과 온종일 함께 지내는 게 너무도 힘들었던 저자는 1년여 고민 끝에 방법을 찾았다. '직장 동료처럼 지내자'. 직장에서는 동료의 존재와 관계 없이 자기 일을 하고 동리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처럼, 남편과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커가는 집을 만들기 위해선 '식탁'을 식사, 요리 준비, 아이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의논하기 등은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으로 만들라고 말한다. 또 자기방에 틀어박힐 권리를 주고 아이들이만 온전하게 집 전체를 쓸 자유, 스스로 자기 방을 바꾸는 힘을 키워주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집은 왜 이리 좁을까 불편하는 이들에게는 '오늘도 또 한가지를 버린다'는 버림의 미학을 실천하고, 감추고 가리는 방법을 써보라고 권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놀이방법 이외에 책을 읽는 독자들도 재미난 놀이법 한 두개 찾았다면 좋을듯하다. "책을 읽으며 떠오른 아이디어를 당신의 방식으로 당장 실천해 보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집에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음에 행복하기를 바란다.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집을 돌아보기를 바란다." 저자의 권유다.

<반디>·1만6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인들의 '자연 그리고 사람'

시애틀 이야기

김태엽·윤찬식·황양준 지음

'삶은 여행이다'라는 말은 명언이 된 지 오래다. 우리의 삶은 끝없이 길을 향해 가는 것이다. 산길일 수도 있고, 들녘길 일 수도 있고, 산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길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삶의 길은 추억이나 기억이 드리워진 내면의 길이거나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길의 모양이나 거리가 어떠한 여행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에 드리워져 있다.

전혀 다른 이력의 세 사람이 시애틀을 매개로 여행 에세이를 펴냈다.

주인공은 아시아나 시애틀 지점장을 거쳐 현재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엽 씨, 외교관으로 세계 각지에서 순환 근무를 하며 시애틀에 체재한 적 있는 윤찬식 씨, 일간 한국일보 시애틀지사 편집국장인 황양준 씨.



이들이 펴낸 '시애틀 이야기'는 시애틀과의 인연을 매개로 전개된다.

시애틀은 누구나 한 번은 들었 을 도시다. 고만고만한 여행 에세이와 변별되는 것은 이 도시를 바라보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시애틀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기에 사색과 소통의 여운이 남 다르다. 물론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본 그곳은 더러는 낯설고 또한 화려하기도 하다.

저자들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서북미의 매력을 객관적으로 세상과 나누기 위해서였다. '자연, 사색 그리고 사람'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이들은 시애틀을 토대 삼아 자연과 사람, 그리고 사색의 향기를 맞닿아온 문제로 풀어낸다.

'미생'의 작가 윤태호는 추천사에서 "초대반아 찾아간 시애틀에서의 며칠은 잔잔하고 강력하게 기억에 남

았고 선의가 총만한 사람들과 보낸 추억은 타인을 대하는 좋은 기준이 되었다"고 밝힌다.

김태엽 씨는 '서북미 지리의 탄생', '빙하지형 위에 세워진 시', '깊고 푸른 호수들' 등 23편의 글에서 시애틀의 자연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윤찬식 씨는 '미국 국가 지도의 완성 과정', '미국의 대통령', '서북미의 매력과 가치' 등 16편의 글에서 미국의 역사와 인권 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황양준 씨는 '결국은 사람이었다', '한국 현대사와 한인 이민사의 산증인', '지침 줄 모르는 열정과 위대한 도전' 등 12편의 글에서 한인 이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각각의 글은 단편처럼 흩어져 있지 않고 시애틀을 배경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인다. 여행에 녹아든 현장감 넘치는 이야기는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수북이 쌓인 토론의 메모는 있지만, 서로의 사색을 강제할 필요도,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었다. 원래 썼을 말랐으니까.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다. 이 작은 기록은 셋의 기억이고 흔적이다. 만남이고 인연이다."

<수필과 비평사>·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성'과 '폭력성' 논란을 넘어 조선인 노무동원의 실체를 나아가 일본제국의 식민지 통치의 본질과 특성을 입체적으로 규명한다. 이 책은 1939년 9월부터 45년 8월까지 이루어진 총력전체제의 전시 노무동원과 그 계획의 책정과정, 무모한 동원의 실태, 동원 속에서 일상화된 폭력, 그리고 동원체제의 붕괴까지 기본 사료를 통해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책이다.

<뿌리와이파리>·1만5000원

▲생각을 걸러내면 행복만 남는다=스트레스나 분노, 슬픔, 우울, 죄책감 등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우리는 대개 이러한 감정들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어떤 상황이나 자신의 여건 혹은 우리 주변의 누군가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을 진실로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자신의 '부풀려진' 생각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 저자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지는 초강력 5단계 마음정리술을 소개한다.

<정신세계사>·1만1500원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요소 아버지=이 책은 아버지가 자녀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날카롭게 분석한 책이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대인관계 카운슬러로 활동한 저자 스테판 B. 폴터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 '아버지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고 강조하며, 이 책을 통해 아버지의 영향력에 관한 자신의 30년 연구를 집약



해 보여준다. <비전북>·1만4000원

▲세계 시장을 주도할 크로스 테크놀로지 100=이 책에서는 2장에 69가지의 기술을 포함하는 최근 테크놀로지 트렌드 11 종류를 소개하고, '가치 재생으로 이어지는 주목할 만한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52가지를 3장에 정리했다. 총 121가지의 새로운 기술이 소개된다. 모든 기술이 중요하지만 인간을 기점으로 삼아 인간의 생명을 담당하는 테크놀로지로서 인간이 이용하는 사물이나 서비스를 바꾸는 테크놀로지, 모든 활동의 토대를 이루는 소재나 에너지, 사회 인프라를 만들고 움직이는 테크놀로지 순서로 전망하고, 이어서 비즈니스나 산업을 바꾸는 테크놀로지를 추가로 소개한다. <나무생각>·1만6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3초 다이빙=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아이. 달리기도 느리고, 수학 문제도 잘못 풀고, 급식 먹는 것조차 다른 아이들보다 느리다. 대신 통통하든 말랐든, 키가 크든 작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모두 똑같이 3초면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 수 있는 다이빙대가 좋다. 그리고 물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좋다. 이거 그 지는 것만이 중요한 일도 아니며, 경쟁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정말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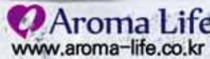
<위즈덤하우스>·1만2000원

▲규칙이 필요해=이 책은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꼭 지켜야 하는 슬기로운 생활 규칙들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알려 주는 그림책이다. 저자 필립 잘베르는 '예절이 필요해!', '안전이 필요해!'에 이어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장난꾸러기 동물들의 일상을 통해 웃음과 교훈을 전달한다. 44가지 규칙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제시해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뿐 아니라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규칙들을 소개하고 또 스스로 실천하도록 이끈다.



<한울림어린이>·1만3000원

▲영덩이로 자동차 시동을 건다? =생체 인식이란 무엇이고, 생체 인식의 종류와 장단점, 수집 방법, 활용 분야 등 생체 인식의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상용화된 다양한 생체 인식 기술을 소개하고, 아이디어 단계에 있거나 연구 중인 기술을 통해 생체 인식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또 생체 인식을 둘러싼 우리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사생활 침해와 정보 유출 등 생체 인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한다. <푸른숲주니어>·1만2000원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및 특수 물결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p>아모리온</p>  <p>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p>	<p>아모리온 롱바디</p>  <p>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p>	<p>아실리 바디슈트</p>  <p>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p>	<p>비비드 아모르</p>  <p>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p>
--	---	--	--

대표전화 1588-2219